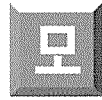


현대정유

앞서가는 스포츠 육성과 기업이미지 차별화

원윤식

〈현대정유 홍보팀〉



모터 스포츠가 레저의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만한 수준까지 온 것도 초창기 일반인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꾸준히 모터 스포츠의 저변확대에 힘쓴 창립 멤버들의 덕분이다. 여기에 현대정유 오일뱅크팀이 있었다.

현대정유(대표 : 鄭夢麟)는 비인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정유사의 이미지에 걸맞는 카레이싱팀 창설을 일찌기 절감하고, 94년 7월, 동종업계에서는 제일 먼저 팀을 창단했다. 당시만 해도 모터 스포츠가 비인기 종목이라 주위의 반대와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지금은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도 남을 만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모터 스포츠의 수준은 카레이싱의 꽃인 「98년 F1 그랑프리」를 한국에 유치할 정도로 성장했다. 현대정유의 선견지명이 없었다면 모터 스포츠가 이만큼 발전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오일뱅크팀(팀장 : 金龍善)은 국내 최고의 레이싱 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해 왔다. 올해 초 팀장을 바꾸었고, 선수진도 새로 보강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국내 최정상의 프로 레이서인 이명목(李明穆) 선수를 전격 영입해 팀전력을 보강함으로써 국내 서킷계계의 최강팀으로 부상했다. 이명목 선수는 국내 선수들중 테크닉과 감각면에서 탁월한 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레이서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포뮬러 A전에 출전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에 걸맞게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이명목 선수가 거둔 성적은 대단하다. 「한국 모터 챔피언십」 시리즈 Touring A 부문 2, 3, 4회전과 내구 레이스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이명목 선수 뿐만 아니라 Touring B 부문에서 윤세진, 김주현 선수를 보강해 이 부문 2, 3, 4회전 및 내구 레이스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김주현 선수는 국내 최초의 여성 프

로 레이서로서 남자 일색인 모터 스포츠에서 여성으로서 그 몫을 당당히 해내고 있다.

Touring A, B에서 4연속 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오일뱅크팀 출전 선수는 Touring A 부문에 이명목, 이원철 선수를, B부문에 윤세진, 김주현 선수를, One Maker부문에는 장순호 선수를 내세우고 있다. 경주차는 96년초 돌풍을 일으킨 「티뷰론」을 Touring A 종목에 투입하고, Touring B와 One Maker 부문에는 「스쿠프 알파」로 뛰고 있다. 팀 인원에는 선수 5명을 제외하고 메카닉 4명, 관리 2명을 두고 있고, 특히 레이스 메카닉으로는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는 최상진이 이명목 선수와 콤비를 이뤄 팀의 기동 역할을 하고 있다.

오일뱅크팀의 향후 계획은 모터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힘쓰는 물론, 이를 통해 타 정유사와의 이미지 차별화를 주도하고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제대회로까지 관문을 넓히는 것이다.

오일뱅크 아이스하키 팀

바야흐로 국내 아이스하키계에 본격적인 실업팀시대가 열린다. 대학가에서만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던 아이스하키가 현대정유가 뛰어들면서 여러 회사가 가세해, 기존의 팀과 더불어 겨울 스포츠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아이스하키협회에 팀 창단 계획서를 제출해 공식 출범하게 된 현대정유 아이스하키팀은 국내 동계 스포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사 기업 홍보와 세계무대에서 한국 동계스포츠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팀 구성은 황규석씨를 감독으로 내정하고 본격적인 선수 물색 작업에 들어갔다. 추후 코치 1명을 보강하고 1차년도에 선수를 20명선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대학 및 유망 고졸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하며,



해외의 재능있는 교포 선수들을 스카우트하여 경기의 질을 높여갈 것이다. 선수들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직 사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예정이며, 경기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도도 병행할 것이다.

향후 현대정유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국내 아이스하키팀을 보유한 학교(고교, 대학)와 자매결연을 맺어 적극적 지원과 함께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며, 국민 체육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에 따라 초현대식 아이스링크장 건립을 구상중이다. 또한 세계 유명팀과 국제교류를 정례화하여 국내선수의 해외진출 및 해외선수의 국내 영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한국 동계 스포츠의 중흥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